

2020년 3월 13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트럼프로 인한 '검은 목요일'

다우지수 9.99% 하락은 역사상 4 번째 급락

미 증시 변화 요인: 실망이 공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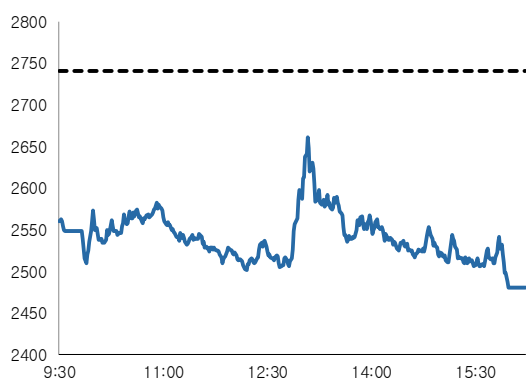
미 증시는 트럼프의 기자회견에 대한 실망감으로 매물 출회되며 급락. 특히 트럼프가 시장의 기대와 달리 적극적인 부양정책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유럽과의 교류를 차단한 점이 투자심리에 악영향. 여기에 ECB 가 유동성 공급을 발표했으나 금리 조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실망. 한편, 연준이 장중 레포 운용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발표 했으나 영향은 제한된 가운데 지수는 급락(다우 -9.99%, 나스닥 -9.51%, S&P500 -9.43%, 러셀 2000 -11.19%)

다우지수가 9.99% 급락하며 1987 년 이후 최악의 하루를 기록. 1987 년 10 월 19 일 '블랙 먼데이' 이후 최악의 하락이자 역사적으로 4 번째 급락(나머지는 1929 년 대공황 시기). 1987 년 하락 요인은 ①프로그램 매매 ②높은 밸류에이션 ③유동성 ④투자심리 등으로 추정. 당시 그린스펀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공급해 안정을 찾음. 이를 감안 향후 연준의 행보는 금리인하 뿐만 아니라 양적완화 등 더 많은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며, 대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또한 대응책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음

오늘 하락의 원인은 트럼프의 기자회견과 ECB 에 대한 실망감. 특히 트럼프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시장 기대와 달리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풀어주지 못했고, 오히려 유럽과의 교류를 중단한다고 언급해 실망감을 준 데 따른 것으로 추정. 여기에 트럼프가 금융시장 변동성은 연준과 민주당, 가짜 뉴스에 의한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시장 인식이 너무 안일 하다는 점이 우려를 더욱 확대. 더불어 유럽과의 교류 중단에 대해 메르켈 독일 총리는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 했으며 강한 반발을 하는 등 외교적인 문제로 확대된 점도 부담

한편, ECB 가 예금금리(-0.50%)를 동결한 것은 더 이상의 금리인하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돼 향후 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인 점도 영향. 물론 TLTRO 유동성 공급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등 기대에 부합했으나 영향은 제한. 이런 가운데 연준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1, 3 개월 레포 거래로 이틀간 1 조 5 천억 달러를 공급. 이에 힘입어 시장이 잠시 저점 대비 5% 상승을 보이기도 했으나, 재차 매물이 출회되는 등 공포 심리는 지속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락률(%)	Close	D-1	지수종락률(%)	Close	D-1
KOSPI	1,834.33	-3.87	홍콩恒生	24,309.07	-3.66
KOSDAQ	563.49	-5.39	영국	5,237.48	-10.87
DOW	21,200.62	-9.99	독일	9,161.13	-12.24
NASDAQ	7,201.80	-9.43	프랑스	4,044.26	-12.28
S&P 500	2,480.64	-9.51	스페인	6,390.90	-14.06
상하이종합	2,923.49	-1.52	그리스	538.55	-10.61
일본	18,559.63	-4.41	이탈리아	14,894.44	-16.9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항공 운송업종 급락

트럼프가 유럽과의 교류 중단을 발표하자 아메리칸 에어라인(-17.28%), 델타항공(-21.00%), 제트블루(-15.33%) 등 항공 운송 업체와 보잉(-18.11%) 등 항공기 제조업체는 물론 부킹닷컴(-11.24%), 라스베가스 샌드(-9.21%), 카니발(-31.17%), MGM(-15.60%), 윈 리조트(-15.89%) 등 카지노, 리조트, 여행 업종도 모두 급락했다. 한편, 유럽과의 교류 중단으로 경기 위축 가능성이 높아지며 국제유가 또한 급락하자 코노코필립스(-13.39%), EOG리소스(-16.37%), 엑손모빌(-11.43%), 셰브론(-8.15%) 등 에너지 업종 또한 급락했다.

한편, JP모건(-8.24%), 웰스파고(-15.87%) 등 금융주는 경기 위축 우려가 높아지자 하락했으며, 애플(-9.88%), MS(-9.48%), 알파벳(-8.20%) 등 대형 기술주는 물론 AT&T(-9.24%) 등 통신업종, 코카콜라(-9.67%), 펩시코(-11.11%) 등 음료업종, 넥스트라 에너지(-13.42%) 등 유틸리티 등 경기 방어 업종 또한 하락하는 등 모든 종목과 업종에 대한 패닉셀이 이어졌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1.59%	대형 가치주 ETF(IVE)	-10.12%
에너지섹터 ETF(OIH)	-14.71%	중형 가치주 ETF(IWS)	-10.69%
소매업체 ETF(XRT)	-12.32%	소형 가치주 ETF(IWN)	-11.32%
금융섹터 ETF(XLF)	-10.81%	대형 성장주 ETF(VUG)	-9.11%
기술섹터 ETF(XLK)	-9.76%	중형 성장주 ETF(IWP)	-9.15%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0.34%	소형 성장주 ETF(IWO)	-11.10%
인터넷업체 ETF(FDN)	-9.31%	배당주 ETF(DVY)	-10.55%
리츠업체 ETF(XLRE)	-8.59%	신흥국 고배당 ETF(DEM)	-9.97%
주택건설업체 ETF(XHB)	-11.35%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9.49%
바이오섹터 ETF(IBB)	-8.85%	미국 국채 ETF(IEF)	+0.05%
헬스케어 ETF(XLV)	-7.47%	하이일드 ETF(JNK)	-4.05%
곡물 ETF(DBA)	-3.84%	물가연동채 ETF(TIP)	-0.24%
반도체 ETF(SMH)	-10.56%	Long/short ETF(BTAL)	+0.8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21.69	-12.30%	-34.33%	-46.58%
소재	271.97	-9.61%	-20.95%	-28.67%
산업재	490.22	-10.33%	-20.15%	-31.74%
경기소비재	766.60	-9.79%	-16.79%	-26.77%
필수소비재	537.00	-9.24%	-15.72%	-18.62%
헬스케어	985.40	-7.41%	-13.17%	-18.86%
금융	336.66	-10.77%	-22.98%	-34.76%
IT	1,319.10	-9.84%	-17.05%	-26.10%
커뮤니케이션	144.33	-8.91%	-15.63%	-24.45%
유틸리티	275.20	-10.19%	-19.39%	-21.47%
부동산	200.75	-8.70%	-17.26%	-21.4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공포가 확산되고 있으나, 이면에는 우호적인 내용도

MSCI 한국 지수 ETF 는 10.34% MSCI 신흥 지수 ETF 도 10.01% 하락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2,854 계약 순매도한 가운데 12.15pt 하락하며 231.65pt 인 하한가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09.5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통해 적극적인 부양책을 내놓지 않고, 유럽과의 교류를 중단한다고 발표하자 실망감이 유입되며 급락했다. 오늘 미 증시는 트럼프 기자회견에 대한 실망감, 특히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일해 적극적인 대응이 부재할 것이라는 공포감으로 패닉에 빠졌다. 여기에 코로나 19 확진자가 유럽에서 급증하고, 미국 또한 확진자 수가 1,323 명을 기록하는 등 관련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공포 심리를 더욱 자극했다. 특히 CME 야간 지수 선물에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한국 시장 참여자들 또한 공포 심리가 극에 달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공포 심리 이면에는 우호적인 내용도 있었다. 비록 금리를 동결했으나 ECB 는 자산 매입 규모를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발표했으며, 미 연준 또한 장중에 레포를 운용해 이틀간 1 조 5 천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각국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공급은 현재의 공포 심리로 영향을 주지는 않았으나, 언젠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코로나 19 에 대한 치료제 관련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 몇 주 안에 시작될 것이라는 미국 보건 당국자의 발언 또한 향후 공포 심리 완화 기대를 높인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하락

미국 신규실업 수당 청구건수는 지난 주 21 만 5 천건을 하회한 21 만 1 천건으로 발표되었다.

미국 2 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하락해 지난달 발표(mom +0.5%), 예상(mom 0.0%)를 모두 하회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수치도 전월 대비 0.3% 하락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하락 지속

국제유가는 달러 강세 및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수요 부진 우려로 매물을 촉발하며 하락했다. 더 나아가 트럼프가 유럽과의 교류를 제한하자 미국과 유럽 모두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진 점도 하락 요인이었다.

달러화는 엔화에는 약세를 보였으나, 유로화와 파운드화에는 강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ECB가 금리 동결과 유동성 공급을 발표했으나, 트럼프의 유럽과의 교류 중단 발표로 경기 위축 우려를 높였다는 점이 부각하며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특히 관광 산업이 발달한 남유럽 문제가 재 부각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점도 유로화 약세 요인 중 하나였다. 파운드화 또한 이 여파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주식시장 급락 등으로 하락 했다. 연준이 3개월 레포 조작을 통해 오늘과 내일 각 5 천억 달러, 1개월 레포 조작 통해 5 천억 달러 등 총 1 조 5 천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발표했으나, 하루 낙폭으로는 역사상 4 번째를 기록한 미 증시 영향이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금은 공포심리가 확산 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현금 확보를 위해 금을 매각하는 모습을 보이자 3% 넘게 하락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경기 위축 우려로 하락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31.50	-4.49	-31.37	Dollar Index	97.554	+1.08	+0.76
브렌트유	33.22	-7.18	-33.55	EUR/USD	1.1173	-0.86	-0.57
금	1,590.30	-3.17	-4.66	USD/JPY	104.66	+0.11	-1.41
은	16.005	-4.60	-7.98	GBP/USD	1.2556	-2.06	-3.07
알루미늄	1,656.00	-1.13	-3.72	USD/CHF	0.9448	+0.67	-0.08
전기동	5,440.00	-1.61	-4.12	AUD/USD	0.6235	-3.84	-5.73
아연	1,938.00	-2.47	-3.63	USD/CAD	1.3944	+1.20	+3.97
옥수수	365.75	-2.34	-4.19	USD/BRL	4.7762	-0.90	+3.46
밀	505.50	-1.41	-2.55	USD/CNH	7.0273	+0.84	+1.24
대두	859.50	-1.57	-4.18	USD/KRW	1206.50	+1.13	+2.14
커피	108.85	-2.86	-2.25	USD/KRW NDF 1M	1209.55	+1.49	+1.76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0.807	-6.21	-10.46	스페인	0.506	+24.90	+29.60
한국	1.375	+1.00	+2.70	포르투갈	0.721	+31.60	+42.90
일본	-0.057	+0.90	+5.50	그리스	2.036	+50.60	+77.50
독일	-0.741	+0.10	-5.50	이탈리아	1.757	+58.40	+69.20